

다산포럼

학교 가는 날



주 윤 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달 제주의 한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그날은 마침 '등교 개학'을 시작하던 날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보조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축제의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떠들썩했다. 오랜 휴교 끝의 등교여서 모두들 들떠 서로서로를 반기워하며 환대하고 있었다. 장애인 학생들은 휴교 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에서 벗어났기에 학교가는 날이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달 이상 학교의 개교에 대해 교육 당국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한동안 애통했다.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 가지 못하면서 집집마다 난리법석이었다. 아이가 돌이상인 집

은 아이들끼리 집에 오래 있다 보니 티격태격하다 사이가 나빠져서 가정 내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누가 노트북을 쓰고 누가 컴퓨터를 쓸 것이냐로 싸우기도 했다.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삼시 세끼를 차리느라 고역이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가정폭력·아동학대가 증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집에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있는 경우는 점심을 차려주고 아이들과 함께한다. 하지만 부모가 일을 하거나, 돌봄을 담당할 조부모가 없는 경우, 아이들은 방치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의 급식이 아니면 양질의 음식을 접할 수 없는 결식아동들은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걱정도 들었다.

제주 장애인학교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휴·이제 살 것 같다"는 표정이나 등교를 했다. 교사들은 가정 내 고립의 생활을 견디고 학교로 온 아이들을 반갑게 환대했다.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 이후 인지적 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일부 보충이 가능했다. 하지만 학교의 급식 혹은 교우 관계, 사회적 교육 등과 관련된 것은 온라인이 모두 보충해줄 수 없다. 더욱이 저학년 아이들 그리고 인지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온라인 교육 환경은 무용지물이다. 그렇기에 제주 장애인 특수학교가 개교하던 날은 떠들썩한 축제날이었던 것이다. 그곳은 또한 우리가 디지털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과 현대의 현상이었다.

학교의 교육·급식·돌봄이 공백으로 있던 동안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 고교생과 그 어머니가 동반자살을 한 일이 있었다. 광주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동반자살했고, 울산에서는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로 장애인 형제가 사망했다. 창녕에서는 학대를 견디지 못한 아동이 맨발로 탈출하는 등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은 사회 각계각층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취약집단에 더 가혹한 것 같다. 학교와 이들의 상시적 돌봄 공간이 문을 닫으며, 당사자와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누구보다도 온기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절절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향후 비발달이나 성장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걱정이다. 전쟁을 겪은 아이들처럼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래도 일상적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나 신나게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이들이 맘 편히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온라인 공간뿐이다. 최근의 뇌과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사회적 결핍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뇌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한다. 애정·온기나 관계 맺기 등 다양한 자극을 받지 못할 경우 뇌는 쪼그라든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심리, 인지, 체력, 사회성의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라도 뇌는 쪼그라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빈곤 및 고립된 가정, 그리고 고아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 재난을 견디어가고 있는지, 사후의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언택트(Untact) 시대, 대학생의 삶



최 화 진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4학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Untact) 사회로 변화했다. 짜릿한 승부와 열띤 응원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스포츠 경기부터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가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 등은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이유로 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대명사인 여행은 이제는 꿈만 같은 일이 돼 버렸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미덕이 된 언택트 사회에서 대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보려

한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온 것은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다. 내가 다니는 동신대학교는 원래 3월 개강 후 2주간의 대면 수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지 않아 종강을 앞둔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3년 동안 매일같이 학교에 나가서 동기들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조별과제를 하며, 사람들과 어울렸던 나의 대학 생활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처음 비대면 수업 강의를 참여할 때는 학교의 강의실에서 듣는 수업과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녹화 방식이 아닌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을 듣는 실시간 강의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강의 중간에 화면이 멈추거나,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청강을 수락하면서 수업이 잠시 중단되는 등 소소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택트 사회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활동에도 영향

을 미쳤다. 나는 이번 학기 모기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한데 이 또한 워크숍과 봉사 활동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예전이라면 매주 사람들을 만나 회의하고 기관을 방문했을 텐데 이제는 메신저와 화상회의의 프로그램으로 회의를 하고 봉사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플랫폼 부족과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체육 대회, 학과 행사 등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와 동기들과의 교류 등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해 몹시 아쉬워하는 마음을 대학 커뮤니티에서 많이 접했다.

하지만 4학년으로 대학 졸업을 앞둔 나에게겐 취업 시장의 다양한 변화들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취업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면 면접이 아닌 화

상 면접과 AI 면접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할 시에는 자신의 표정을 면접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대면 면접에 대비해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취업의 필수 자격증이 된 토익의 경우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실 전 발열 증상을 확인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어색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만나없이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다. 언택트 사회도 처음엔 우리에게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이내 곧 적응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고와 실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社說

공익성 외면 '어등산' 어쩌다 갈등만 남았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산 넘어 산,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었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익성은 사라지고 개발 논리에 따른 갈등만 남았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을 늘려서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사업자 측은 사업 추진의지를 밝히며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 업체와의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광주시 계약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시설 개발'이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이처럼 꼬인 것은 공익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했다는 지적이 많다. 2005년 처음 시작부터 그랬다. 민

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 시설'로 골프장 27홀(체육시설)이 포함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주)어등산리조트(금광기업)는 2012년 골프장만 우선 개장했다. 결국 시는 '돈 안 되는' 테마파크 개발 사업만 떠안게 됐다.

광주시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어등산 골프장 선(先)개장'을 승인하는 대신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호텔) 조성 사업은 이후 진척이 없었다. 일부 민간 업체들은 골프장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테마파크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며 포기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호반과 서진건설 등이 사업 승계에 뛰어들었지만, 실패했다.

결국 돈 되는 골프장 선개발을 방지하고 선개장까지 승인해 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사업 표류를 조차한 셈이다. 아무 성과도 없이 지역사회의 갈등만 유발하는 이런 어של픈 행정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과 후 수업' 재개 방역 고삐 더욱 조여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초·중·고교 전 학년 등교에 이어 지역 중·고교들이 '방과 후 수업'을 속속 재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의 4차 등교를 마지막으로 초·중·고 전 학년이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지역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고3을 중심으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시작했다. 이는 방역과 학습 준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도 고3 등교 수업이 이뤄진 이후 일반 고교 91곳 대부분이 방과 후 수업이나 부분적인 야간 자율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들이 속속 방과 후 수

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사 일정 지연으로 학습 결손과 대입 준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집단 감염 여파가 수도권에서 광주까지 남하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 당장 광주 33만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을 이용한 학생들이 있거나 동선상 겹치는 주변 39개 학교들이 어제부터 이틀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딱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학생들의 특성상 집단의 방식이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발열 체크와 교실 내 학생들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177석의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에 이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집거에 들어갔던 조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복귀하리'라면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강수를 내놓았다. 권력 교체 수단인 법사위원장직을 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가져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시키고 단일 대오를 형성, 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는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의 역공에 민주당은 당총스럽다는 반응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한다면 당장 실익은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만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복은 반상(盤上)을 마주하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다는 점에 서 정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복에는 대국에 임하는 자세와 전략을 나타내는 '위기십결'(圍棋十訣)이라는 10가지 비결(격언)이 있다.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다'는 부득탐승(不得貪勝),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공피고아(攻彼顧我),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사소취대(捨小就大) 등이 대표적이다. 탕평·협치·상생 등 정치에 필요한 많은 전략이 박복에 모두 담겨 있다.

지금 정치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코로나19 사태와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당장 3차 추경안 처리도 급하다. 사실상 여야 모두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의 결국 협상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는 '위기십결'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쪽이 먼저 한 걸음 물러나 '협치와 상생'의 포석에 나서는지 주시하고 있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위기십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11(광)		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용



임형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극복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였지만 이태원 클럽, 제주도 관광, 기독교 예배처럼 불시에 폭발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어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의 사회와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그 영향은 상당한 미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많은

회사들이 재택 근무, 격일 근무, 단축 근무 등으로 근무 방식을 바꿨으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와 대학교 역시 휴교를 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일상 생활 방식이 바뀐 것이다. 그중에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 문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2010년 4월 이후 최저라고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실업률도 동반 감소하여 경제 전반이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임시직 58만 명 감소, 일시 휴직자 113만 명 증가, 자영업 17만 9000명 감소 등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공채가 아닌 상시 채용으로 채용 방법을 바꾸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기도 벅찬 상황으로 신규 채용은 더 힘든 상황이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호황을 누리는 분야도 있다. 진단키트, 마스크, 손

소독제, 알코올, 아크릴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늘어난 제품 관련 회사는 평소와 다르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비대면을 위한 통신 판매, 원격 교육, 재택 근무 관련 업종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홈 스킨링,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역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직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한 국내 제조업, 먼 미래로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비대면 상황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 직종들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스마트 워크 및 스마트 공장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직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는 등 직업 구조 전환과 노동 수요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다양한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준비하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탄력적 대응도 필요하다. 고용 문제 역시 그러할 것이다.

많은 기업의 2020년도 채용 계획이 연기되고 취소된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들

은 발 빠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살아온 시대와 코로나19 시대를 나눌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 또는 시험만을 준비하는 자세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채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용에 관한 각계각층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뿌리 산업, 전기·전자 산업 등 전통적인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고 있으며 일 학습 병행 사업을 통해서 요즘 상황에 맞게 기업이 스스로 채용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एम 및 공기업 대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실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 양성에 병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이처럼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다양한 훈련 교육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인·구직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려 한다.